일본 LGBT문학 시론*

- 남성 동성애문학을 중심으로 -

이지형**
leejh87@sm.ac.kr

Contents

Ⅰ. LGBT와 LGBT문학 연구의 의의
Ⅱ. 일본 LGBT문학의 영역과 경계
Ⅲ. 남성 동성애문학 연구의 논제
3.1 커밍아웃과 은폐 사이
3.2 이성애와 동성애 사이
3.3 전전과 전후 사이
Ⅳ. 남성 동성애문학의 내적 구조
4.1 혐오와 긍지
4.2 결벽과 전율
4.3 고독과 죽음
Ⅴ. 향후 연구의 가능성과 방향성

Ⅰ. LGBT와 LGBT문학 연구의 의의

본 논문에서는 일본 LGBT문학 연구의 가능성과 의의를 남성 동성애문학을 중심으로 모색하고자 한다. LGBT란 무엇인가? LGBT는 '성 소수자' '성 마이너리티'를 의미한다. 여성 동성애자(Lesbian), 남성 동성애자(Gay), 양성애자(Bisexual), 트랜스젠더(Transgender)의 첫 글자를 조합해 만든 용어다. 단어의 유래는 성 소수자 당사자들이 스스로를 적극적으로 자인하고자 한 데서 비롯되었고, 처음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통용되기 시작해 현재 일본에서도 '성 소수자' '성 마이너리티'와 혼용되거나 이를 대체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여기

* 본 연구는 숙명여자대학교 2012년도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과제번호 1-1203-0280)
** 숙명여자대학교 일본학과 교수, 일본근현대문학 전공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에서는 '성 소수자' '성 마이너리티' 등의 용어에 명시화된 그(그녀)들의 '동일성'과 '주변성'을 가능한 구별적, 중립적 시좌에서 고찰하고자 'LGBT'란 용어를 선택해 사용하기로 한다.[1] 물론 기존 용어에 내포된, 차별과 소외의 현재성이라는 문제의식을 계승함을 그 전제로 한다.

그 정의가 상대적으로 수월한 LGBT와는 달리 LGBT문학의 정의는 간단치 않다. 그것은 LGBT 작가가 쓴 문학인가? LGBT가 작품 내에 등장하는 문학인가? 아니면 동성애와 같은 LGBT적 요소가 삽입된 문학인가? 혹은 LGBT와 일견 무관해 보이는 작품이라도 독자가 작품에서 어떤 암시를 찾아낸다면 이것을 'LGBT문학'이라 부를 수 있는가?[2] 이처럼 'LGBT문학'이라는 카테고리는 그 자체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 본 논문의 논의는 이 '불확실성'을 전제한다. 그렇기에 여기서 사용하는 LGBT문학은 'LGBT적 문학'이라는 포괄적이고 유연한 의미에서 사용하고자 한다.

LGBT문학 연구의 의의는 우선 LGBT 존재를 실존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의 의의와 맞닿아 있다. LGBT는 현대 사회에서 궁극의 마이너리티이자 소수자라 할 수 있다. 인종・계급・연령・장애・성별 등의 다양한 척도에서 사회적 약자인 여러 소수자들 중에서도 LGBT는 가장 주변적 존재이다. 그(그녀)들은 '비정상성'을 근거로 뿌리 깊은 편견과 차별에 내몰려 왔으며 때로는 그 존재 자체가 은폐된 채 부정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그녀)들의 영역은 '금기'의 영역이었다. LGBT문학 연구는 문학을 매개로 그 '금기'의 영역을 대면함으로써, LGBT의 존재 자체를 공식적인 논의의 장으로 회귀케 하는 효과적 계기가 될 수 있

1) LGBT로 통칭되는 성 소수자 각각의 내실은 결코 균질하지 않으며 심지어 비대칭적이다. 하지만 LGBT 상호 간에 엄존하는 '차이'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그들을 함께 문제시하는 것은, 이른바 '정상성'으로부터의 일탈을 이유로 그들이 주류 사회로부터 감수해야만 하는 차별, 혐오의 양상이 매우 '유사'하기 때문이다. 그들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그들은 '유사'한 존재로 규정된다. 하지만 외부로부터 규정된 존재의 유사성이야말로, 역설적이게도 LGBT가 내부적 차이를 넘어 횡단, 연대해야만 하는 근거이자 출발점이다. 이지형(2012)「일본LGBT(문학) 엿보기-그 불가능한 가능성-」『일본비평』8호,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pp.194~196 참조.

2) 黒岩裕市(2009)「ホモセクシュアル文学」『昭和文学研究』第58集, p.78. 黒岩는 '동성애' '동성애문학'이라는 카테고리의 불확실성과 모호함 때문에 '남성과 여성의 동성애 문학을 일괄해 함께 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단언한다. 같은 맥락에서 LGBT문학이라는 카테고리 또한 불확실성을 내포한다. 하지만 그 점에 충분히 주의하되 LGBT 내부의 차이를 넘어 문학이라는 매개를 통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연대를 맺고자 하는 일련의 시도는, 바로 그 불확실성과 불가능성으로 인해 역설적으로,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해야 할 것이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다. 이러한 기대는 문학 연구의 위계 내에서 매우 주변적 위치에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한때 그 실체가 부정되기도 했던 LGBT문학 연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품을 수 있다.

두 번째 의의는 현실과의 접점을 확보한 채 문학 연구를 보다 풍요롭게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양한 방식으로 소외・배제・기피・무시・폄훼되어온 LGBT문학 텍스트를 재조명하고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을 엶으로써 문학 연구의 지평을 확대할 수 있다. 이는 동시에 LGBT, 즉 궁극의 소수자가 감당해 온 역사적, 현재적 굴레를 언어・주체성・제도 등 다양한 층위에서 문제시함으로써 문학과 현실의 상호 관련성을 입체적으로 논증할 수 있는 연구이기도 하다.

Ⅱ. 일본 LGBT문학의 영역과 경계

일본 LGBT문학의 영역은 제한적이고 모호하다. 표면적으로는 존재감이 그다지 두드러지지 않으며 비LGBT문학과의 경계 또한 불명료한 경우가 많다. 앞서 논술한 LGBT문학의 특별한 '주변성'을 감안한다면 이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그런 가운데서도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동성애문학, 특히 남성 동성애문학이다. 남성 동성애문학의 수맥은 여성 동성애문학을 포함한 다른 LGBT문학 전체를 압도한다. 마찬가지로 매우 제한적인 일본 LGBT문학 연구의 성과 또한 대부분 남성 동성애문학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본 논문이 남성 동성애문학[3]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이기도 하다.

선행연구에서는, 우선 구로이와 유이치(黒岩裕市)와 아토가미 시로(跡上史郎)의 최근 연구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구로이와는 「호모섹슈얼문학(ホモセクシュアル文学)」(2009)에서 기존 동성애문학 연구를 개관하며 '동성애문학' 자체의 정의 및 범주를 근본적으로 문제시한다. 더불어 오에 겐자부로(大江健三郎), 에도가와 란포(江戸川乱歩) 등의 소설을 남성동성애 표상의 관점에서 논하고 있다.[4] 아토가미는 「최초의 동성애문학-『가면의 고백』에서의 근대의 각인(最初

3) LGBT문학과 마찬가지로, 여기서의 남성 동성애문학은 '남성 동성애적 문학'의 느슨한 의미로 사용한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の同性愛文学－『仮面の告白』における近代の刻印」(2000)에서 일본 남성 동성애문학을 논함에 있어 피해갈 수 없는 대상인 문제적 작가, 미시마 유키오(三島由紀夫)의 소설에 대해 논한다. 그는 그 이전까지 "일본문학 세계에서 남색 및 동성애에 관한 속설의 유포는 있어도 문학의 형태로 동성애 아이덴티티가 형성된 예는 없었다"[5]며 『가면의 고백』(1948)을 통해 비로소 일본 동성애문학의 근대가 열렸다고 주장한다. 이는 소설 속 동성애 주체를 애써 '모른 체'하며 작품의 주제나 구조에만 초점을 맞추곤 했던 기존 연구의 방향과는 확연히 선을 긋는 입장이다. 그간 일본문학 내의 '동성애'적 요소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부차적인 것으로 치부된 측면이 컸다. 특히 작가 자신의 동성애 지향과 맞물려 논란이 되는 경우, 그리고 그 작가가 이른바 메이저 작가일수록 작품의 '동성애' 요소에 착목하는 것은 암묵적으로 회피되는 경향이 없지 않았다. 그렇기에 아토가미의 논문은 미시마 자신의 커밍아웃 소설 여부로도 논란이 되었던 『가면의 고백』의 동성애 아이덴티티를 우회하지 않고 적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그 외에 요시카와 도요코(吉川豊子)는 「호모섹슈얼문학 개관(ホモセクシュアル文学管見)」(1992)에서 메이지, 다이쇼 시대의 '스쿨 보이 동성애' 소설의 계보와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 『마음(こゝろ)』, 미시마 유키오 『금색(禁色)』의 동성애성을 논하며 남성 동성애문학의 경계를 측정한다.[6] 또한 자연주의 문학과 섹슈얼리티를 동성애 관점에서 논했던 90년대 후루카와 마코토(古川誠)의 일련의 성과들도 주목할 만하다.[7] 나쓰메 소세키의 『마음』(1914)을 '동성애소

4) *黒岩裕市(2005)「「男色」と「変態性欲」の間 : 『悪魔の弟子』と『孤島の鬼』における男性同性愛の表象」『一橋論叢』134(3), 一橋大学
*黒岩裕市(2012)「大江健三郎『喝采』の男性同性愛表象」『フェリス女学院大学文学部紀要』(47), フェリス女学院大学

5) 跡上史郎(2000)「最初の同性愛文学－『仮面の告白』における近代の刻印」『文芸研究』150巻, p.70.

6) 吉川豊子(1992)「ホモセクシュアル文学管見」『日本文学』, 日本文学協会, pp.95~97.

7) *古川誠(1994)「セクシュアリティの変容:近代日本の同性愛をめぐる3つのコード」『日米女性ジャーナル』(17), 城西大学
*古川誠(1994)「江戸川乱歩のひそかなる情熱-同性愛研究家としての乱歩(江戸川乱歩の魅力-生誕100年<特集>)-(乱歩の軌跡)」『国文学解釈と鑑賞』59(12), 至文堂
*古川誠(1996)「自然主義と同性愛--明治末性欲の時代(特集・近代日本とセクシュアリティ)」『創文』(380), 1996.9, 創文社
*古川誠(1997)「近代日本の同性愛認識の変遷 -男色文化から「変態性欲」への転落まで (特集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설의 걸작'이라 단언했던 고모리 요이치(小森陽一) 「『마음』에 있어서의 동성애와 이성애-「죄」와 「죄악」을 둘러싸고(『こゝろ』における同性愛と異性愛-「罪」と「罪悪」をめぐって)」(1994)의 신선한 충격도 빼놓을 수 없다.[8]

문학의 외연에서 동성애를 논한 작업으로는 가자마 코(風間孝)와 후시미 노리아키(伏見憲明)를 놓칠 수 없다. 가자마는 정치, 역사의 관점에서 동성애 및 동성애자 문제를 소환하고 있고[9], 후시미는 문학과 현실을 넘나들며 남성 동성애의 계보를 목록화한다.[10]

하지만 이러한 일련의 결과물에도 불구하고 선행 연구의 성과들은 산발적이고 단편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더욱 문제적인 것은, 남성 동성애문학을 포함한 일본LGBT문학 연구의 기저에 '억압'의 역학이 크게 작동하고 있다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억압은 LGBT 및 LGBT문학을 향한 학계 내외부로부터 의식·무의식적 금기와 외면, 그리고 그것을 내면화한 연구자 자신의 자기검열 등이 함께 맞물려 현실화된다. 아토가미의 말을 빌리자면, 연구자들은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알려고 하지 않는다".[11] 이것은 "인식의 문제" 이전의 문제이다. 이로 인해 야기된 연구의 결핍은 국가·계급·인종·민족·젠더 등 뿌리 깊은 경계와 장벽을 월경하며 횡단적으로 사고하는 현재의 문학·문화연구 풍토의 개방성을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더욱 도드라져 보인다. 중심과 주변 관계의 전복, 혼종성 등 현실의 문제의식을 투영한 문화이론이 연구 작업에 적극적으로 도입·전유되는 이 시점에서도 LGBT문학은 철저히 주변적 위치에 내몰려 있다. 이것은 근대 이전의 '남색(男色)'적 문화를 포함해 근현대문학을 통해서 더욱 미미하지 않은 존재감을 발하는 남성 동성애문학의 수맥을 감안할 때

多様なセクシュアリティ)」『季刊女子教育問題』(70), 労働教育センター

8) 小森陽一(1994)「『こゝろ』における同性愛と異性愛一「罪」と「罪悪」をめぐって」, 小森陽一・中村三春・宮川健郎編『総力討論　漱石の『こゝろ』』, 翰林書房

9) *風間孝(1997) 「エイズのゲイ化と同性愛者たちの政治化 (総特集　レズビアン/ゲイ・スタディ-ズ) - (理論とアクティヴィズム)」『現代思想』25(6), 青土社
*風間孝(1997)「解釈の政治学-同性愛者の歴史と証言(特集=教科書問題-歴史をどうとらえるか)」『現代思想』25(10), 青土社

10) *伏見憲明(1997)『性のミステリー―越境する心とからだ』, 講談社
*柿沼英子×西野浩司×伏見憲明(2000)「三島由起夫からゲイ文学へ」『クィア・ジャパン』VOL.2
* 伏見憲明(2004)『ゲイという経験』, ポット出版

11) 跡上史郎、前掲書、p.70.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도 분명 문제적이고 예외적이다. 본 논문의 문제의식은 여기에 있다.

그러면, 넓은 의미에서 남성 동성애문학으로 분류할 수 있는 일본소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명확한 구분이 곤란함을 전제로 제시하자면, 아래와 같은 소설들이 일본 남성 동성애문학의 예시가 될 수 있을 것이다.[12]

* 森鴎外『ヰタ・セクスアリス』(1909)
* 夏目漱石『こゝろ』(1914)
* 浜尾四郎『悪魔の弟子』(1929)
* 江戸川乱歩『孤島の鬼』(1929~30)
* 堀辰雄『燃ゆる頬』(1932)
* 川端康成『しぐれ』(1949),『少年』(1951)
* 三島由紀夫『仮面の告白』(1948),『禁色』(1951)
* 福永武彦『草の花』(1956)
* 大江健三郎『喝采』(1958),『セヴンティーン』(1961)
* 中上健次『奇蹟』(1989),『讃歌』(1990),『異族』(1993)
* 水上勉『男色』(1969)
* 加賀乙彦『帰らざる夏』(1973)
* 森茉莉『恋人たちの森』(1975),『枯葉の寝床』(1975)
* 須永朝彦『天使』(1975)
* 比留間久夫『YES・YES・YES』(1989),『ハッピー・バースデイ』(1990)
* 橋本治『愛の帆掛舟』(1989),『つばめの来る日』(1999)
* 花村萬月『ブルース』(1992)
* 吉田修一『最後の息子』(1997),『パレード』(2002)
* 藤野千夜『夏の約束』(1999)
* 石川大我『ボクの彼氏はどこにいる？』(2002)

위 목록은 메이지유신 이후의 일본 근현대문학 중 20세기 이후 소설을 대상으로, 가능한 유연한 범주에서 '순문학'에 가깝다고 평해지는 텍스트를 중심으로 선정하였다.[13] 그렇기에 그 선정기준은 명료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동성애

12) 이 목록은 '남성 동성애' 관점으로 선행 논문에서 거론된 작가 및 작품들을 가능한 망라하고, 웹사이트 http://kenko321.web.fc2.com/gay/list-gay.html을 참고한 것을 토대로 작성되었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소설과 동성애적 소설, 동성애 성향의 작가의 소설과 그렇지 않은 작가의 소설, 순문학적 소설과 통속문학적 소설이 혼재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런 불확실한 구분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일단 판단을 보류하고 시좌를 LGBT문학 전반으로 확대해 보자.

트랜스젠더 문학의 경우, 독자적인 장르 실체가 뚜렷하지 않음에도 작품 속 개성적 캐릭터를 통해 선명한 인상을 각인시킨 소설들이 있다. 요시모토 바나나(よしもと ばなな)의 『키친(キッチン)』(1987)과 무라카미 하루키(村上春樹)의 『해변의 카프카(海辺のカフカ)』(2002) 등이 그 대표적 예다. 『키친』에 남자에서 여자로 트랜스한 에리코상(えり子さん)이 있다면, 『해변의 카프카』에는 여자로 태어나 남자로 살아가는 오시마상(小島さん)이 있다. 흥미로운 것은, 트랜스젠더 두 사람의 기묘한 성 정체성이다. 에리코상은 사랑하는 아내와의 사별 이후 더 이상 어떤 여자도 사랑할 수 없을 것 같고 아들에게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이유만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고, 그 결과 남자이자 아버지에서 여자이자 어머니로 트랜스한다. 오시마상은 성동일성장애를 겪는 여성으로 겉모습은 남성이지만 정작 성적으로는 남성에게 매력을 느끼는 이다. 에리코상이 트랜스젠더가 된 것은 성동일성장애 때문에 불가피하게 성별 전환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일반적인 사회 통념상의 트랜스젠더 인식과 무관한 선택이다. 이에 비해 오시마상의 성 정체성은 여성의 정신과 남성의 신체의 경계에 애매하게 걸쳐 있다. 히가시노 게이고(東野圭吾)의 『아내를 사랑한 여자(片想い)』(2001)[14]는 사회의 날선 차별

13) 물론 '순문학'이라는 카테고리 또한 지극히 불명료한 것이지만, 이른바 '통속문학', '대중문학'까지 그 영역을 확장할 경우에는 그 대상의 방대함과 모호함으로 인해 선별 작업이 한층 곤란해질 것이 분명하기에 고육지책으로 '순문학'이라는 애매한 경계를 설정해 금욕적으로 선별하였다. 다만 위 목록의 텍스트 중 이 기준에서 다소 예외적인 작가가 있다. 바로 모리 마리(森茉莉)와 이시카와 다이가(石川大我)이다. 모리 오가이의 딸이기도 한 모리 마리의 소설은 이른바 '야오이 소설'로 불리는 BL(Boy's Love)문학 장르의 효시로 평가되기도 하지만 여기에서는 목록에 포함시켰다. 또한 이시카와 다이가 『내 그대는 어디에 있나?(ボクの彼氏はどこにいる?)』는 남성동성애자인 작가 자신의 자전적 커밍아웃(coming-out) 소설로서 이른바 현대 일본 '게이소설'의 대표격으로 일컬어진다. 순문학보다는 통속문학적 성격이 더 짙지만, 그 상징성을 감안해 목록에 함께 포함시켰다.

14) 현재 이 소설은 국내에 원제목 『짝사랑』이 아니라 『아내를 사랑한 여자』(창해, 2006)라는 의역의 제목으로 번역 출판되어 있다. 『짝사랑』이라는 원제목 그대로 출판되었던 2003년도 초판에서 제목만 바뀌어 2006년에 다시 출판되었다. 현재의 번역 제목을 존중하고자 함과 더불어 성 소수자가 등장하는 소설 내용을 독자로 하여금 보다 용이하게 짐작케 하는 제목으로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과 맞서기 위해 남녀 트랜스젠더 간의 제도적 '성별 교환'이라는 궁극의 위장 전략을 고안할 수밖에 없는 그(그녀)들의 처절한 현실을 고발한다. 이처럼 일본문학 속 트랜스젠더는 LGBT의 불확실성과 경계성을 여실히 투영하는 캐릭터로 조형되어 있다.[15]

심지어 여성 동성애문학의 경우, 대표 작가로 불리는 마쓰우라 리에코(松浦理英子)의 대표작 『엄지발가락 P의 수업시대(親指Pの授業時代)』(1993), 『개몸(犬身)』(2007)에서 여성 주인공의 성애 대상은 페니스로 변한 자신의 엄지발가락 혹은 어린 개로 변신한 여성이다. 여기서 레즈비어니즘은 양성구유 혹은 수간의 모습으로 표출된다.[16]

이렇듯 LGBT와 비LGBT, LGBT문학과 비LGBT문학 사이의 경계는 물론 LGBT문학 내부의 경계 또한 결코 자명하지 않다. 그렇기에 남성 동성애문학의 명확한 경계 설정도 결국은 무의미한 작업일 수 있다. 하지만 그 명확한 경계 획정이 어차피 불가능함을 피할 수 없다면, 이러한 불확실성 혹은 월경성이야말로, 역설적으로 남성 동성애문학 나아가 LGBT문학의 가능성이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LGBT문학의 확장성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Ⅲ. 남성 동성애문학 연구의 논제

이번 장에서는 텍스트 분석을 통해, LGBT문학 연구의 통로로써 남성 동성애문학을 고찰함에 있어 피해갈 수 없는 핵심적 논제들을 거론해 보고자 한다.

3.1 커밍아웃과 은폐 사이

성 소수자의 존재는 다른 마이너리티와는 달리 잠재적이다. 흔히 '커밍아웃'

바뀌었다는 점에서, 『아내를 사랑한 여자』로 표기하였다.

15) 이지형, 앞의 논문, pp.209~210 참조.

16) 『개몸』의 세계는 종(種)동일성 장애, 도그 섹슈얼(dog sexual)과 같은 성 정체성에 관한 새로운 용어로 언술되기도 한다. 이지형, 앞의 논문, pp.208~209 참조.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이라 불리는 성 정체성의 자기고백 없이는 그(그녀)들의 존재는 여전히 은폐된 채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은폐의 이유, 그것은 잠재된 차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이 '잠재적 소수자성'[17]이야말로 성 소수자와 다른 마이너리티가 구별되는 큰 특징이다. 커밍아웃에는 당연히 주류 사회의 가혹한 차별과 멸시를 감내할 만한 각오와 용기가 요구된다. 그렇기에 커밍아웃은 "동성애자의 게이 아이덴티티 확립을 목표로 동성애상을 <수치>에서 <긍지>로 전환해 차별을 철폐하고 동성애자의 존재를 항상 공공연한 비밀로 몰아넣어 무시해 왔던 이성애 체제에 대한 문제제기를 실행"[18]하는 의지적 행동이다.

문학은 전통적으로 LGBT가 커밍아웃하는 그나마 가장 제도적인 통로로서 기능해 왔다.[19] 이른바 '고백 소설'을 통해 커밍아웃하는 주체는 주로 남성 동성애자였다. 일본문학의 경우도 예외일 수 없다. 미시마 유키오의『가면의 고백』(1948)의 주인공 '나'는 성장과 더불어 자신의 게이 아이덴티티에 점차 눈뜬다. 소설 속에서 '나'는 커밍아웃하지 않지만『가면의 고백』은 작가 미시마 자신의 커밍아웃 텍스트로 평가되기도 한다.[20] 미시마의『금색』(1951)에서 절대미를 상징하는 미청년 유이치(悠一)는 유명 노작가 슌스케(俊輔)에게 커밍아웃하고 여성에의 복수를 꿈꾸는 그의 지시에 따르는 계약을 맺지만, 의도치 않게 유이치에게 매혹되고 만 노작가는 쓸쓸히 자살한다. 오에 겐자부로(大江健三郎) 소설『갈채(喝采)』(1958)의 주인공 나쓰오(夏男)는 연상의 프랑스인 동성 연인과의 특별한 관계가 주변에 알려질까 두려워하며 은폐에 급급한다. 후쿠나가 다케히코(福永武彦)의『풀의 꽃(草の花)』(1956)에서 후배 후지키(藤木)를 향하는 선배 시오미(汐見)의 흠모는 우정과 동성애 사이에서 맴돌다 결국 비극으로 맺게 된다. 아래의 인용①, ②, ③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그들의 '비밀'은 '가면'과 '위장' 혹은 '무자각' 속에서 은폐되거나, 커밍아웃을 통해 더 이상 비밀이 아니게 된다. 그(그녀)들의 실존은 항상 기로에 서 있다.

---

17) 이지형, 앞의 논문, p.193.
18) 大橋洋一(1999)「解説」, Oscar Wilde外 著・大橋洋一 監訳『ゲイ短編小説集』,平凡社. p.356.
19) 참회, 고해성사도 커밍아웃의 일종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 참회나 고해성사는 고백 상대인 성직자의 비밀엄수를 전제로 하는 개인적, 종교적 차원의 고백이기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성 정체성의 비밀이 알려짐을 전제하는 '커밍아웃'과는 엄밀히 구별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0) 이지형, 앞의 논문, pp.207~208 참조.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① 그 눈은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리고 입 주변에는 하염없이 소녀와 같은 가냘픈 미소를 띠우고 있었다. 나는 불현듯 방금 막 접한 한 마리 꿀벌과 이름 모를 흰 꽃을 떠올렸다. 그의 뜨거운 호흡이 내 뺨에 전해져 왔다. (중략) 어느새 우오즈미는 교묘히 새 가면을 쓰고 있었다.[21]

(호리 다쓰오(堀辰雄)『불타는 뺨(燃ゆる頬)』(1932))

(밑줄은 논문작성자에 의함, 이하 동일)

② 유이치는 견문이 넓어짐에 따라 이 사회의 뜻밖의 광대함에 놀랐다. 이 사회는 낮 시간에는 정체를 은폐하는 위장을 하고 멈춰 서 있었다. 우정, 동지애, 박애, 사제 간의 정, 공동경영, 조수, 매니저, 서생, 상사와 부하, 형제, 사촌형제, 삼촌과 조카, 비서, 수행원, 운전수 등등. (중략) 남성 세계의 온갖 위장을 한 채 머물러 있었다.[22] (미시마 유키오『금색』)

③ 비밀, 그러나 그건 누구든 알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나는 그것을 소중히 간직하고 싶었다. 후지키에게 향한 이 비밀스런 마음을.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몰래 간직하고 싶었다.[23] (후쿠나가 다케히코『풀의 꽃』)

3.2 이성애와 동성애 사이

남성 동성애문학에서 동성애적 정체성은 태생적인 것만은 아니다. 『금색』의 노작가에게 볼 수 있듯이 그것은 후천적으로 견인, 발견되기도 한다. 『풀의 꽃』의 시오미 또한 후배 후지키를 흠모하다가, 후지키의 사후에는 그의 여동생 지에코(千枝子)와 연인 관계가 된다. 여전히 후지키의 잔영이 시오미의 무의식을 지배하지만, 그에게 있어 동성애와 이성애는 넘나들 수 없는 장벽이 결코 아니다. 이처럼 동성애의 원인과 그 경계는 명확하지도 단순하지도 않다. 그렇기에 이성애와 동성애의 관계 또한 '정상/비정상' '건전/퇴폐'의 이항 대립적 통상 관념으로 수렴되지 않는, 경계의 모호함을 노정한다.

① 그리고 모로토와 나 사이는 단순히 친구라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종류의

21) 堀辰雄(1987)『燃ゆる頬・聖家族』、新潮社、pp.4~5.
22) 三島由紀夫(2013)『禁色』、新潮社、p.157.
23) 福永武彦(2013)『草の花』、新潮社、p.73.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것이었다. 모로토는 나에게 이상한 연애감정을 갖고 있었고, 나는 그 마음을 깊이 이해하지는 못했으나 기분상으로는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그런 감정이 보통 때처럼 싫지가 않았다. 그와 같이 있으면 그나 나나 어느 한 쪽이 이성이라도 된 듯 달콤한 기분을 느꼈다. 어쩌면 그 기분이 우리의 탐정 일을 더 유쾌하게 했는지도 모른다.[24] (에도가와 란포(江戸川乱歩)『외딴섬 악마(孤島の鬼)』(1929~30))

② 「내가 정신과 의사에게 물어봤는데, 자네 같은 경우는 유전성인지 아닌지 아직 판단할 수 없다고 하더군.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네.」(중략) 이 공포로부터 유이치는 자신을 해방시키고 싶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아내를 해방시켜야 한다. 임신은, 출산은 얽매이게 하는 것이다. 해방을 단념하는 것이다.[25] (『금색』)

인용①의 『외딴섬 악마』에서 주인공 미노우라(箕浦)는 선배 모로토(諸戸)의 동성애적 호감에 자각적일 뿐만 아니라 혐오감마저 드러내면서도, 때론 '단순히 친구라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서로 '이성이라도 된 듯 달콤한 기분'을 느끼기도 한다. 이처럼 그 경계는 자명하지 않다.

한편 인용②의 『금색』에서 유이치는 자신의 동성애적 정체성이 자식에게 유전될 것을 두려워하며 내심 낙태를 고심한다. 그는 자신의 동성애적 성향이 선천성인지 후천성인지에 대한 확신도 없기에 더욱 불안하다. 자신의 '비밀'과 고뇌가 자식에게 계승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물론 슌스케가 유이치를 위로하듯이 동성애는 유전성이 아니다. 기실 이 부분에 함의된 의미는 동성애와 이성애가 구별되는 명확한 분절점, 즉 공동체의 재생산이다. 이성애적 관계와는 달리 동성애적 관계에서 출산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 여기서 뜻하지 않게 아내를 임신시킨 동성애자 유이치의 낙태 욕망은 동성애 관계에 수반될 수밖에 없는 공동체 재생산 불가능성을 암시적으로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3.3 전전과 전후 사이

전후 발표된 남성 동성애소설에는 뭔가 이질적이면서도 일관된 공통의 색조가 있다. 바로 전후의 음울함, 무력감, 데카당스의 분위기이다. 전전의 기억은

24) 江戸川乱歩(2013)『孤島の鬼』、角川書店、p.136.
25) 三島由紀夫、前掲書、p.230.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전후의 퇴영적 분위기 속에서 여전히 현재를 지배한다. 『가면의 고백』(1948)의 주인공은 천운으로 징집을 면했던 부채 의식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금색』(1951)의 퇴폐미는 전전의 낭만적 불안과 맞닿아 있다. 가와바타 야스나리(川端康成)는 『소년(少年)』(1951)에서, 전전의 『설국(雪国)』(1935~48)에서도 그러했듯이 현실로부터 자신을 고립시킨 채, 전쟁이 발발하지도 않은 전전 이전의 소년시대(1916~22)를 회고적으로 반추할 따름이다. 『풀의 꽃』(1956)의 주인공은 전쟁 혐오의 기억과 종군의 후유증 속에서 폐결핵을 얻어 소멸의 기로에 있다.

> 나는 프랑스 남자인 당신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굴욕을 더 이상 참고 싶지 않아. 굴욕이라는 점을 알아주길 바래. 당신은 내 친구들을 노란색 피부의 일본인이라고 항상 여기고 있어.[26] (오에 겐자부로 『갈채』)

> 나란 놈의 호모 자식, 나란 놈에게야말로 박수갈채다.[27] (『갈채』)

오에 소설 『갈채』(1958)의 젊은 대학생 주인공은 프랑스 대사관에 근무하는 40세 프랑스인 남성과의 연인 관계를 내심 굴욕과 수치로 여긴다. 인종, 사회적 지위, 경제력 등 모든 잣대에서 주인공은 타자이다. 그는 이성애적 일탈을 욕망하지만 역시 그것이 (성적) 불능임을 확인하고 좌절한 채 프랑스인 연인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양자의 기묘한 관계는 패전 후 주체성이 소거된 전후 일본의 무력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일본 청년의 거세된 남성성은 곧 전후 일본의 자화상이다. 오에는 분명 이 소설의 남성 동성애 표상을 통해 전후 일본의 현실에 자각적이고 비판적인 자신의 인식을 가감 없이 표출하고 있다. '갈채'는 타자화된 주체를 대상화하는 인식 주체의 자기비하적, 자기혐오적 시선을 상징한다. 이처럼 전후 남성 동성애소설은 전전과 전후 사이의 연속성과 단절성을 양의적으로 표상하는 텍스트이기도 하다.

---

26) 大江健三郎(1994)『大江健三郎全作品』(第一期)2、新潮社、p.71.
27) 上掲書、p.79.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Ⅳ. 남성 동성애문학의 내적 구조

그러면 '동성애'는 문학 텍스트에서 어떻게 묘사, 기술되고 있는가? 동성애자는 자신의 특별한 성정체성을 어떻게 수용하며, 비동성애자는 어떤 시선을 동성애자에게 던짐으로써 사회의 평균적 인식을 표상하는가? 나아가 동성애 아이덴티티는 어떤 과정을 통해 (재)구축되는지에 대해 고찰해 보자.

4.1 혐오와 긍지

동성애를 인식하는 전통적인 사회의 시선은 질병・성적 도착・장애・변태성욕・퇴폐・타락 등 온갖 부정적 개념의 집합체이다. 이는 한마디로 '혐오'의 감정으로 수렴된다.

> 남자끼리의 입맞춤을 보고 만 미망인은 구역질이 나서 고개를 돌렸다. 『교양이 있다면 저런 흉내 따위 낼 수 있을 턱이 없어.』 「변태성욕」이라는 말의 우스꽝스러움과 뭐라 할 수 없을 만큼 우스꽝스러운 이 「교양」이라는 말이 떠오르자 미나미 미망인은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긍지가 눈을 떴다.[28] (『금색』)

'교양' 있음을 자처하는 미나미 미망인은 남성 동성애 현장을 목격하고 '구역질'로 상징되는 '혐오'의 감정이 고양된다. 그녀에게 동성애는 '변태성욕'이자 '비교양'이다. 흥미로운 것은, 그런 '혐오'의 감정이 그녀에게 그간 잠재된 '긍지'를 일깨우는 동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그녀의 '긍지'는 '정상인'으로서의 긍지이다. 또한 여성으로서 남성에게 억압되어 온, 미망인을 주시하는 사회의 시선 속에 자기 단속을 감내해 온 굴레로부터 일시적이나마 해방된 감정을 맛본 데서 비롯된 긍지이다. 그녀의 '긍지'는 동성애자에 대한 그녀의 '혐오'와 교환가치이다. 하지만 정작 그녀의 아들 유이치가 게이임을 그녀는 알지 못한다.

한편 남성 동성애의 전통적 근거의 하나는 여성혐오이다.

> ① 나는 여자라는 것의 더러움을 너무나 많이 보았어. 그래서 어머니와 모든 여

28) 三島由紀夫、前掲書、p.570.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성을 더럽게 느끼고 증오하게 된 거야. 너도 알고 있는 나의 도착적인 애정은 이런 데서 오지 않았는가 싶어.[29] (『외딴섬 악마』)

② 「쳇, 여자 따위」 지나가는 여학생 무리에 미노루는 침을 뱉었다. 그리고 피상적인 성적 이야기를 매도라도 하듯 내뱉었다. 「……여자 따위가 뭐야. 가랑이 사이에 불결한 주머니를 차고 있을 뿐이잖아. 주머니에 쌓이는 것은 먼지뿐이야.」[30] (『금색』)

위 인용①, ②의 두 소설에서 남성 동성애자가 여성을 대하는 시선은 '불결'로 집약된다. '혐오'의 감정은 이처럼 게이로부터 여성을 향하기도 한다. '여성 혐오'는 남성 동성애의 근거인 동시에 남성 동성애자가 '긍지'를 품는 바탕이 된다.[31] 혐오는 이렇게 쌍방향적으로 작동한다. 이와 같이 사회적 마이너리티, 여성과 남성동성애자는 서로의 '혐오'와 '긍지'를 맞바꾼다. 여기서 벌어지는 것은 '주변성'간의 교환이자 거래이다.

이러한 등식은 남성 중심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 필수적인 두 가지 형태의 억압, 즉 동성애 혐오증과 여성 혐오증을 그대로 증명한다. 남성들의 가부장적 동맹은 이 두 형태의 억압을 통해 조절된다.[32] 남성 동성애문학 텍스트는 이렇게 근대국가의 남성 중심적 구조의 논리를 철저히 내면화하고 있는 것이다.

4.2 결벽과 전율

여성과 이성애를 혐오하는 남성 동성애자들은 대신 남성의 정신과 신체의 '미', '청결', '순수'에 집착하는 일종의 결벽 성향을 보이기도 한다.

---

29) 江戸川乱歩、前掲書、p.192.
30) 三島由紀夫、前掲書、p.543.
31) 여기서 서양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을 위시해 역사상 남성 동성애와 이성애에 대해 차별적으로 인식해 왔던 문화적 계보를 떠올리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남성 동성애는 청결, 순수, 미, 교양 등의 긍정성을, 이성애는 불결, 불순, 추, 저속 등의 부정성을 각각 의미했다. 이 때 남성 동성애는 여성 배제의 선민의식의 발로 그 자체였다. 플라톤의 저작 『향연』 등에서 그 자취를 확인할 수 있다.
32) 조셉 브리스토우 저, 이연정・공선희 역(2000)『섹슈얼리티』, 한나래, p.275.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①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아름다운 정신(魂)이 있고, 그 정신을 인식하는 방법이 있지요. 글쎄 당사자는 자신이 아름다운 정신의 소유자라고 생각도 못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후지키(藤木)의 그런 겸허한 부분을 정말 좋아합니다. 후지키의 정신을 이해하는 것은 저뿐입니다. 저는 인간 내부의 그런 아름다운 것, 순수한 것을 한번 발견한 이상, 저 자신의 정신, 이 불결한 정신을 아름답게 하고 또 타인을 아름다운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합니다.[33]

(『풀의 꽃』)

② 「자네의 눈썹은 이 얼마나 늠름하고 상쾌한 눈썹인가. 나에게 자네의 눈썹은 무언가……뭐랄까, 젊디젊은 청결한 결심과 같은 것을 나타내고 있다네.」(중략)「자네에겐 이름 따윈 필요 없네.」 전 백작은 단정적으로 말했다. 「왜냐고, 바로 자네는 전형이기 때문이야.」[34]

(『금색』)

동성애적 호감은 상대의 정신적 미와 순수를 발견케 하고, 이로써 동성애 주체의 불결을 정화한다. 심지어 동성애 주체는 위의 인용①에서처럼 상대 스스로도 자각 못한 아름다움을 자신만이 이해할 수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동성애적 감정에 사로잡힌 그는 동성애 상대에 대해서만큼은 '유일자'로서의 독보적 위치에 있다는 '결벽'적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동성애적 신체는 여성・이성애의 '불결'에 대치되는 '청결'로 표상된다. 그것에 절대미를 발견하고 '전형'이라 찬미하는 동성애적 욕망 또한 대체 불가능한 '결벽'적 세계에 속해 있다.

한편 동성애자는 두 가지 전율을 동시에 절감한다. 하나는 두려움의 전율이며, 다른 하나는 환희의 전율이다.

① "나를 경멸하지 말아 줘, 넌 내가 비열하다고 생각하겠지. 나는 별종이야. 모든 의미에서 별종이야. 그렇지만 왜 그런지 설명할 수가 없어. 나는 가끔 혼자 무서워서 떨곤 해."[35]

(『외딴섬 악마』)

33) 福永武彦、前掲書、p.105.
34) 三島由紀夫、前掲書、pp.264~265.
35) 江戸川乱歩、前掲書、p.28.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② 슌스케를 맞이해 일어서는 유이치의 모습을 창 앞에서 마주한 순간, 노예술가는 거의 전율했다. 그의 마음이 지금 분명히 이 미청년을 사랑하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다.[36] (『금색』)

전자의 ①의 두려움은 주체의 외부를 향하며, 후자의 ②의 환희는 주체 내부를 향한다. 둘은 분리 불가능한 양가적 감정으로, 낯선 것과 조우한 데서 비롯된 '경이로움' '놀라움' '위화감'이 그 기저에 공통적으로 존재한다. 동성애자를 대하는 사회의 혐오 섞인 전율과는 차원이 다른 전율을 그(그녀)들은 온몸으로 마주한다. 남성 동성애소설에 '전율'을 의미하는 일련의 단어들(예:おののく, 慄える)이 빈출하는 것은 이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4.3 고독과 죽음

남성 동성애문학의 세계를 상징하는 키워드를 하나만 들자면 필시 '고독'일 것이다. 그들은 소수자로서 '고독'하기도 하지만, 그 이상으로 고독을 사랑한다. 고독은 그들의 동반자이며 존재 이유이다. 고독은 궁극으로 치달을 때 필연적으로 '죽음'과 맞닿게 된다. 때론 그들은 스스로 죽음을 기꺼이 선택하기도 한다. 『금색』의 노작가는 유이치를 사랑하게 된 고독의 끝에 죽음을 택하고, 『풀의 꽃』의 시오미는 성공을 담보할 수 없는 수술을 감행함으로써 자신의 의지로 최후를 맞이한다.

나는 말일세, 진정한 고독은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상처받지 않는 극한의 무엇, 어떤 괴로운 사랑에도 견딜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네. 그건 굳건한 정신의, 적극적인 상태라고 생각한다네. (중략) 누군가로부터 사랑받는다는 건 양지의 미지근한 물에 잠겨있는 것 같은 것이기에 거기엔 어떤 고독도 없지. 하지만 누군가를 힘껏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의 고독을 거는 일일세. 설사 상처받을 우려가 있다 해도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삶의 자세가 아니겠나.[37] (『풀의 꽃』)

예술가는 만능이 아니며 표현 또한 만능은 아니다. 표현은 언제나 양자택일을

36) 三島由紀夫、前掲書、p.228.
37) 福永武彦、前掲書、pp.102~103.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 강요당한다. 표현인가, 행위인가? (중략) 그러나 진정 중요한 문제는 표현과 행위의 동시성이 가능한가라는 점이다. 그것에 대해 인간은 한가지만은 알고 있다. 그것은 죽음이다. 죽음은 행위이지만 이만큼 일회적이며 궁극적인 행위는 없다. (중략) 죽음은 사실에 지나지 않는다. 행위의 죽음은 자살이라고 바꿔 불러야 할 것이다. 인간은 자신의 의지로 태어날 수는 없지만, 자신의 의지로 죽을 수는 있다. 이것이 고래의 모든 자살철학의 근본명제이다. 그러나 죽음에 있어, 자살이라는 행위와 생의 온전한 표현의 동시성이 가능함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38] (『금색』)

모름지기 사랑이란 고독한 법이다. 고독은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에서 비롯되기에 필시 고독은 '상처'를 수반한다. 이는 동성애뿐 아니라 '사랑' 일반에 동일할 것이다. 다만 동성애적 사랑은 그 자체의 주변성으로 인해 '괴로운 사랑'이 될 개연성이 더 크다. 후배 후지키로부터 응답받지 못하는 시오미의 사랑이 바로 그러하다. 하지만 그 상처와 장애를 초월할 때 그것은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상처받지 않는 극한의 무엇', 즉 '진정한 고독'의 경지에 다다를 수 있다. 그리고 이 때 고독은 죽음이자 곧 예술이다. '죽음' 혹은 '죽음적인 것(진정한 고독)'에 의해서만이 '예술'은 표현과 행위의 동시성을 구현함으로써 완성될 수 있다. 이는 예술과 죽음을 동일시하는 명백한 '사의 찬미'이다. 시오미와 슌스케는 '자살'이라는 의지적 행위를 통해 동성애적 삶을 온전히 표현하고, 그럼으로써 '고독'과 '죽음'과 '예술'은 마침내 하나가 된다. 그곳은 곧 일본 남성 동성애문학이 작지만 오롯한 하나의 의미를 획득한 지점이기도 할 것이다.

Ⅴ. 향후 연구의 가능성과 방향성

이상에서 남성 동성애문학을 중심으로 일본 LGBT문학 연구의 의의를 확인하고 그 가능성을 모색해 보았다. LGBT문학 연구는 제국과 식민지, 국가와 국민, 체재와 개인 등 다종다양한 '중심과 주변'의 비대칭 관계를 문제시하는 현재의 문학·문화 연구의 문제의식에 여실히 부합하는 영역이다. 그 중에서도 남성

38) 三島由紀夫、前掲書、p.681.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동성애문학은 외부로부터 LGBT문학에 가해지는 차별과 억압에 가장 노출되어 있으되 내부적으로는 양과 질 모두에서 중심적 지위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매우 양의성을 지닌다. 그렇기에 명확한 기준의 부재라는 불확실성을 내포하면서도 남성 동성애문학 텍스트의 리스트를 우선 선별해 보았다. 텍스트를 선별하는 목록화 작업은 기준의 명시화, 조사의 충실화를 통해 보강함과 더불어 그 영역을 여성 동성애문학 등 다른 LGBT문학으로 순차적으로 확장해 갈 것이다.

문학 텍스트 분석을 통해 추출한 연구 논제는 커밍아웃과 은폐 사이, 동성애와 이성애 사이, 전전과 전후 사이의 세 가지였다. 남성 동성애문학은 이렇게 상반된 양자 간 관계 구도의 다중성을 노정한다. 그 문학을 규정하는 각 구도의 양자 관계는 단순히 이항대립적이지 않다. 오히려 동일성과 차이를 공유하는 양면 가치적 관계에 가깝다. 문학작품은 커밍아웃과 은폐의 기로에 서 있는 동성애 정체성의 경계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또한 동성애와 이성애의 경계는 반드시 명확하지는 않다. 전후, 왕성히 발표된 남성 동성애문학은 전전과 전후 사이의 연속성과 단절성을 동시에 표상하는 텍스트이다. 나아가 이러한 세 가지 구도를 지탱하는 문학의 내적 구조는 혐오와 긍지, 결벽과 전율, 고독과 죽음의 세 키워드의 조합을 통해 고찰해 보았다.

이렇게 LGBT라는 관점에서 일본 근현대문학을 조망하면 분명 그 가능성과 한계는 함께 드러날 것이다. 가능성을 더욱 현실화하고 그 한계와 결핍을 새로운 가능성과 생산성으로 전유할 수 있는 역전의 사고를 실천함을 통해서 새로운 문학연구의 지평이 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월경과 횡단', 오늘날 인문학 연구자들에게 요구되는 이 방법이 단지 논리의 차원을 넘어 현실과 소통하는 성찰적 자세로서 연구에 투사될 때, 일본 LGBT문학은 그 심연으로부터 떠올라 새로운 가능성의 영역으로서 가시화될 수 있을 것이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참고문헌

김학이(2013)『나치즘과 동성애』, 문학과지성사, p.15.
신지연(2006)「1920~30년대 '동성(연)애' 관련 기사의 수사적 맥락」『民族文化研究』,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p.266.
윤조원(2012)「멜빌의 청년들: '퀴어'한 결혼과 남성적 성장의 서사」『영미문학페미니즘』 제20권2호, 한국영미문학페미니즘학회, pp.149~156.
이승신(2007)「야마자키 도시오「크리스마스이브(耶蘇聖誕祭前夜)」론-동성애문학이라는 관점에서」『아시아문화연구』제13집, 경원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p.174.
이지형(2012)「일본LGBT(문학) 엿보기-그 불가능한 가능성-」『일본비평』8호,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p.193.
조셉 브리스토우 저, 이연정・공선희 역(2000)『섹슈얼리티』, 한나래, p.275.
플로랑스 타마뉴 저, 이상빈 역(2007)『동성애의 역사』, 이마고, p.94.
허호(2004)「미시마 유키오의 문학과 나르시시즘-『금색』을 중심으로」『世界文学比較研究』11권, 세계문학비교학회, pp.232~238.
跡上史郎(2000)「最初の同性愛文学-『仮面の告白』における近代の刻印」『文芸研究』150巻, p.70.
飯野由里子(2008)『レズビアンである<わたしたち>のストーリー』生活書院, pp.61~63.
大橋洋一(1999)「解説」, Oscar Wilde外 著・大橋洋一 監訳『ゲイ短編小説集』, 平凡社, p.356.
柿沼英子×西野浩司×伏見憲明(2000)「三島由起夫からゲイ文学へ」『クィア・ジャパン』VOL.2
風間孝(1997)「エイズのゲイ化と同性愛者たちの政治化(総特集 レズビアン/ゲイ・スタディーズ)-(理論とアクティヴィズム)」『現代思想』25(6), 青土社
_____(1997)「解釈の政治学-同性愛者の歴史と証言(特集=教科書問題-歴史をどうとらえるか)」『現代思想』25(10), 青土社
風間孝・河口和也(2010)『同性愛と異性愛』, 岩波書店, pp.146~148.
菅聡子(2006)「女性同士の絆-近代日本の女性同性愛」『国文』第106集, お茶の水女子大学国語国文学会, pp.28~33.
黒岩裕市(2005)「「男色」と「変態性欲」の間 : 『悪魔の弟子』と『孤島の鬼』における男性同性愛表象」『一橋論叢』134(3), 一橋大学
_____(2009)「ホモセクシュアル文学」『昭和文学研究』第58集, p.78
_____(2012)「大江健三郎『喝采』の男性同性愛表象」『フェリス女学院大学文学部紀要』(47)
小森陽一(1994)「『こゝろ』における同性愛と異性愛一「罪」と「罪悪」をめぐって」小森陽一・中村三春・宮川健郎編『総力討論 漱石の『こゝろ』』, 翰林書房
ジェームス・キース・ヴィンセント(1998)「大江健三郎と三島由起夫の作品におけるホモ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ファシズムとその不満」『批評空間』2期(16), 太田出版, p.132.
田中玲(2006)『トランスジェンダー・フェミニズム』, インパクト出版会, p.11.
伏見憲明(1997)『性のミステリー―越境する心とからだ』, 講談社, p.19.
_____(2004)『ゲイという経験』, ポット出版, pp.361~362.
古川誠(1994)「セクシュアリティの変容:近代日本の同性愛をめぐる3つのコード」『日米女性ジャーナル』(17), 城西大学
_____(1994)「江戸川乱歩のひそかなる情熱-同性愛研究家としての乱歩(江戸川乱歩の魅力-生誕100年<特集>)-(乱歩の軌跡)」『国文学解釈と鑑賞』59(12), 至文堂
_____(1996)「自然主義と同性愛--明治末性欲の時代(特集・近代日本とセクシュアリティ)」『創文』(380), 1996.9, 創文社
_____(1997)「近代日本の同性愛認識の変遷 -男色文化から「変態性欲」への転落まで (特集 多様なセクシュアリティ)」『季刊女子教育問題』(70), 労働教育センター
吉川豊子(1992)「ホモセクシュアル文学管見」『日本文学』, 日本文学協会, pp.95~97.
http://kenko321.web.fc2.com/gay/list-gay.html(검색일:2013.10.12.)

❖ 투고일 : 2013.12.31
❖ 심사완료일 : 2014.02.10
❖ 게재확정일 : 2014.02.10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Abstract

日本LGBT文学試論

- 男性同性愛文学を中心として -

李志炯

本論文は男性同性愛文学を中心として日本LGBT文学研究の可能性と意義を模索した試論性格の研究である。LGBTは性少数者、性マイノリティー全般を総括して呼ぶ用語であるが、LGBT文学の定義はけっして簡単ではない。なぜならば、それは作家がLGBTである文学か、あるいは作品内容にLGBT要素が入った文学か等々、定義の基準と境界が非常に曖昧だからである。このようにLGBT文学は、カテゴリそのものが不確実性を内包している。というわけで、この論文で使われる<LGBT文学>は<LGBT的文学>という柔軟で包括的な意味で使うことにする。LGBT文学研究の意義は、まずLGBTという存在を実存的に確認する作業の意義とつながっている。LGBTは究極のマイノリティーと言える。LGBTは人種、階級、年齢、障碍、性別などの多様な尺度から差別、疎外されてきたマイノリティーの中でも明らかに最も周辺的な存在である。LGBT文学研究は、文学を媒介としてその禁忌の領域と対面することによってLGBT存在を公式的論議の場に回帰させられる効果的契機に成り得る。また、散発的に研究はされてきたものの、<非正常性>を根拠としてその実体と意義は無視、貶められ勝ちだったLGBT文学そのものに対しても同じ期待が抱けるであろう。そういう意味で、その研究は帝国と植民地、国家と国民、体制と個人など様々な<中心と周辺>の非対称的関係を問題視する現在の文学・文化研究の問題意識に如実に符合する領分でもある。

本論文は日本LGBT文学の中でも男性同性愛文学に焦点を当てる。男性同性愛文学は、LGBT文学の中で質量ともに中心的な領域であると同時にその文学の周辺性・マイナー性を象徴するという意味で両犠牲を持っているからである。まず、20世紀以後日本近現代小説を対象に<男性同性愛文学>を選別する。選別は<男性同性愛的文学>という相当フレキシブルな基準に基づいて行われた。先行研究などで論じられた作品を含め関連ウェブサイトなどを参考し、読解と追加調査過程を経て網羅的に選別した。なるべく厳正な選定を試みたが、LGBT文学定義そのものの不確実性と文学テキスト群の膨大さの故に、選定作品リストが論者の恣意性と限界性を露呈していることは否めない。でも、なお新たな議論の叩き台としての意義もなた否定できないであろう。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今後、具体的に論究されるべき男性同性愛文学研究の論題を述べると次のようになる。カミングアウトと隠蔽の間、同性愛と異性愛の間、戦前と戦後の間。男性同性愛(文学)はこのような相反する両領分の境界の上に不安定な形で立たせられている。その文学を規定する各関係の両者は単純な二項対立の関係ではない。むしろアンビバレンスな両面価値的関係にある。社会の差別から自分を保護するため隠蔽した同性愛的アイデンティティーは文学という通路を通してカミングアウトされる。また、同性愛と異性愛の境界は必ずしも明確ではない。戦後、旺盛に発表される男性同性愛文学は戦前から戦後に渡る連続性と断絶性を両議的に表象するテキストでもある。さらに、その文学の内的構造を表すキーワードとして嫌悪と矜恃、潔癖と戦慄、孤独と死の三つが挙げられる。以上のようにLGBTという観点から日本文学を考え直すと、その可能性と限界がともに露呈されてくる。その代表的な限界はやはり枠組みそのものの不確実性であるが、その欠乏を逆手にとって可能性や生産性として逆転の思考を実践していくところで新しい文学研究の地平も開かれてくるであろう。<越境と横断>、今日、研究者に望まれるこの方法が単に論理のレベルを乗り越えて省察的姿勢として研究に投射されるとき、日本LGBT文学は明らかに可能性の領分として現実化できると思われる。

Key Words : LGBT(LGBT)、日本LGBT文学(Japanese LGBT literature)、男性同性愛文学(Male homosexual literature)、禁忌(Taboo)、カミングアウト(Coming-out)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